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보험회사,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필요

- 미국국립해양대기청과 영국기상청 등은 최근의 지구온난화 측정 지표들이 예년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고 있음을 볼 때 지구의 기후가 변화했다는 주장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고 밝힘.
 - 지구온난화 측정 지표인 지표면 대기온도, 해수표면 온도, 해양 대기온도, 해수면, 대양의 열저류량, 습도, 지표면 활동 온도 등은 예년의 수치를 크게 상회하였고, 북극해 얼음 및 빙하 두께, 북반구 봄철 강설량, 성층권 온도는 예년보다 크게 감소 또는 하락하였다고 밝힘.
 - 이러한 지표들의 변화는 기후체계의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인은 지구 온실화라고 주장함.

- 영국보험협회(ABI)는 영국기상청 등의 최근 보고서와 자체적인 기상예측 모델을 바탕으로 기온 상승이 가져오는 자국의 사회적 비용과 보험산업의 부담 비용을 산출함.
 - 영국에서 기온 상승으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피해는 홍수와 가뭄이라고 분석함.
 - ABI는 대기온도가 섭씨 2도 상승할 때 영국 보험산업은 4천7백만 파운드의 연평균 손실과 16%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고, 4도 상승하면 8천만 파운드의 손실과 27%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며, 6도 상승하면 1억3천8백만 파운드의 손실과 47%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고 밝힘.
 - 한편, 홍수 방지를 위해 1파운드의 예산 투입되면 홍수로 인한 피해 복구 금액은 8파운드 절약될 것이라고 분석함.

- 그러나 ABI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보험산업의 실질적인 대처 수준은 상당히 취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보험산업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함.
 - 서베이 조사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25%는 기후변화에 대해 낙관적이며, 75%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, 기후변화 대응을 실행에 옮기는 회사는 23%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.
 - ABI는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홍수·가뭄 방지를 위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아야 관련 보험상품 공급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.

(Financial Times, 8/4, ABI 7/29)